제738호 1989년3월4일 창간 2003년 6월 22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국장 :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

"…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 12:1~3)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세상과 사람, 죄와 문명,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영어로 Genesis)' 라는 말 자체가 '기원' 혹은 '시작'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놀라움으로 각인되는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목표와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라고 믿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표라고 할 만한 아무 것도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심을 다해 응했고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험,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믿음의 모험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계획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심판에 감추인 은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동물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복된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 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지 금지된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은 행동이었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위에 올려놓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행동의 두려운 결과로 죄가 사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인류와 세상에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뱀과 남자와 여자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과 단절의 상태에 빠진 그들이 또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저주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랑과 자비

사람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계속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수명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창 6:7). 그러나 당대에 흠이 없던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따라서 온 땅을 홍수로 덮으시는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더 악한 반역으로 치달아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힘을 모아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사람들을 다시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당대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갈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무지 아브라함이 움직일 동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장차 보여줄 것이라' 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것이라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익숙한 것을 떠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향해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물질의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도록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딛는 믿음의 길이 시련과 고난뿐이라는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는 곳에 머물도록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온갖 나쁜 일들을 당하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을지 합니다. 그러나 안팎에 가득한 온갖 반대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유혹을 무시한 채,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절).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롬 4:18~19).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유대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여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땅에서 임시적으로 받은 물질과 영의 축복, 그리고 명성(창 23:6)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도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아브라함은 모든 자손이 축복받는 믿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곧 그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그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구원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괄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좇으니라"(막 1:17~18).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9~10).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축복을 얻습니다. 영생의 약속을 얻습니다(요 3:16).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교육,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혹은 모험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 형제 자매, 혹은 친구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합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노아의 홍수는 온 땅을 쓸어버렸으며, 바벨탑에 모인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창조물인 인류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 얻게 될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수 24:23). 아멘!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물질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욕망들을 떨쳐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를 섬기십시다. 아멘.

Sermon of pastor Kim

START WITH GOD

"…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
(Genesis 12:1-3)

The book of Genesis is about the beginning of many things: the world, man, sin, civilization, the nations, and Israel. The word itself means "origin" or "beginning." Today's message focuses upon the beginning of the nations through one man, Abraham. It's an incredible story that reaches to the heart of every Christian and teaches us the all importance of starting with God in faith. So often we start in the direction of our own goals, under the premise that we believe it is God's plan. Abraham started his real life with God and without his own goals. He was called to wholeheartedly invest in God and begin an unknown adventure that required him to live by faith, not sight. It was and still is a monumental point in God's salvation plan. Before we jump into the significance of today's verses, it's important we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that led up to them.

In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God created the world and everything in and around it. He did this by the power of His word, "Then God said," and whatever He said was! He created the first human beings, Adam and Eve, in His image, unlike the animals. He gave them life from His breath and created the most beautiful place, the Garden of Eden, from which they could rule the things of this world and live in harmony with God and His creation. Adam and Eve lived in a world without sin. Regrettably, they didn't follow the word of God and ate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ir sin was more than merely eating forbidden fruit; it was disobeying the revealed word of God, believing the lie of Satan, and placing their own wills above God's. Sin, with all its dreadful consequences, now entered the human race and the world in general.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an was broken. The curses of sin came into affect and God's judgment fell upon the serpent, the man, and the woman. He drove them from the garden as both a punishment and an act of mercy, lest they should eat of the tree of life and live forever in a state of death and alienation.

Despite man's sin and rebellion against God, God's love and mercy still continued. In the time from Adam to Noah, the earth's population grew rapidly because of human longevity. The extreme wickedness of man grew to such proportions that God was sorry He had made man. The Lord said, "I will blot out man whom I have created from the face of the land, from man to animals to creeping things and to birds of the sky; for I am sorry that I have made them" (6:7).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because he was a righteous man, blameless in his time, and he walked with God. So, God flooded the earth and spared only Noah and his family. After the flood, God promised never to flood the earth again, but mankind, once again, dove deep into rebellion against God. Whereas He instructed them to scatter through the earth, they came together in fear and built a tower to prevent people from scattering. At the tower of Babel, God intervened and confused mankind's language to scatter them.

It's here, in mankind's confusion, that we come to the wonderful story of the beginning of the nations, the call of Abraham,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v. 1). God called Abraham directly to faith. He asked him to leave his country and family, a very, very dangerous move in a tribal society. Also, God didn't show or describe to Abraham his new land so that he might be more motivated to follow. Oh no, God simply said, "I will show you." This future tense means that Abraham had nothing to rely on but God's word. His eyes were empty. He had to move from the familiar to unfamiliar, in other words, from the material world to the spiritual world. For the first time in the Bible, a human is required to step out in faith—to dangerously risk everything!

The proof of Abraham's faith was his obedience. He listened to God. One can only imagine the trials and tribulations he had to go through in his faith. His family probably thought he was absolutely nuts and pressured him to stay. They most likely thought he was stupid and deserving of whatever bad things would befall him. Nonetheless, with all the contrasting elements that surrounded him, inside and out, Abraham walked on in faith. He ignored the temptations of others and simply trusted in God without seeing the benefits.

God promised Abraham that if he would start with Him in faith and follow Him in faith that He would make him a great nation, bless him, make his name great, and make him a blessing (v. 2). This sovereign promise of God was fulfilled through Abraham's faithfulness, "In hope against hope he believed, so that he might become a father of many nations according to that which had been spoken,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Without becoming weak in faith he contemplated his own body, now as good as dead since he was about a hundred years old, and the deadness of Sarah's womb; yet, with respect to the promise of God, he did not waver in unbelief but grew strong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Rom 4:17-19). Amen! Indeed, he became a great nation, the founder of the Jewish nation, through his descendants Isaac and Jacob. The promise of blessing him and making his name great was fulfilled in Abraham's temporal blessing of material wealth (see 13:2; 24:35), spiritual blessings (see 21:22), and fame (see 23:6). He was a blessing because of the consequence of God's blessing upon him!

By starting with God and following God in faith, God also promised Abraham, "An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the one who curse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v. 3). Abraham was the source of faith that enabled all his descendants to be blessed, through which none greater than Jesus Christ was born, and with whom we ourselves are related. Amen! Through his faith, Abraham became God's friend, so that whoever blesses him gets blessed and whoever curses him gets cursed. No one can ignore the Israelites because God gave Abraham to His salvation plan. Every nation, every family, is blessed through his starting with God in faith. Through Abraham our Savior came to this earth, so that whosoever comes to Him receives blessing. Through Abraham, the whole earth was able to receive God's greatest blessing, the sacrifice of His only Son for the payment of all sin. So that whoever believes in the Lord God, starts with Him in faith, becomes a disciple of Jesus Christ, a descendant of Abraham. "And Jesus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Mk. 1:17&18). Just as Abraham immediately obeyed the call and commands of God, so too the followers of Jesus must respond.

As Abraham was directly called by God to start with Him in faith, so too we are directly called by God to start with Him in faith. God's calling you! "He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kind intention which He purposed in Him with a view to an administration suitable to the fullness of the times, that is, the summing up of all things in Christ, things in the heavens and things on the earth" (Eph. 1:9&10). In Christ, you have the blessing of living in harmony with God. God promises you, like Abraham, that if you follow Him in faith you will receive the promised land of eternal life (see Jn. 3:16). When you start with God and trust in Him through your faith in Christ, you become a blessing, His friend, His child.

Many in the world today start their life with money, education, a strong reliance on technology, or through a joint venture. Some start with their parents, brother, sister, or friend. Let's confess our true faith and start with God. Adam and Eve were kicked out of Garden of Eden, the flood of Noah flushed out the entire earth, the world at Babel was scattered, but through all this God still loves humanity, His creation. He called Abraham and showed him the specific way to live in harmony with Him. Through faith, He promised blessing, immense blessings, in which we become His family. "Now therefore, put away the foreign gods which are in your midst, and incline your hearts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Josh. 24:23). Amen! Material things and our own desires detract from faith. Let's put them away, go to God, and serve Him.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14)

오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에 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성은 우리가 과거에 어두움이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만물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어두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을 따라 행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빛을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요 3:19~20).

우리 속의 죄악 된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의 죄악 된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를 예수에게서,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만함과 물질적인 욕심들과 세상적인 자랑들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숨게 만들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예수와 함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우리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고후 4:6).

예수를 만난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바울에게서 일평생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사도 바울은 묵묵히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죄악을 책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나 의지나 윤리적 교육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속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비추신 그 빛을 우리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만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합니다. 아직도 자신의 직분과 신앙의 경력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십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흐리게 하는 것이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행동들입니다. 자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빛 보다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빛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윤정훈 전도사)

준비된 영혼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러한가? 오직 기쁨과 즐거움 뿐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선교를 가야할 당위성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까지 만들어 주셨다. 나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날을 고대하며 훈련을 열심히 받았다. 장소가 스리랑카의 '누에라 에리아'로 정해졌다. 선교에 대한 훈련들을 받고 언어 훈련을 하고 나서 안산 역 외국인 촌에서 스리랑카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실습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현지에 도착해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으며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곳 사람들은 검은 피부에 천 한조각을 몸에 두르고 맨발로 다녔다. 우리나라의 60년대처럼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곡괭이를 든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우리들은 당대하게 기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했던 내역들을 빼앗아 불에 태우고 우리를 보내주었다. 우리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 순진한 민족이 온전히 복음을 알게 되길 기도했다. 그런데 이게 왠 은혜인가? 그 결과 스물 세 살의 남미끄, 스물 여섯 살의 닫사나이, 천 살의 스릴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들은 숙소 식당에서 주일 낮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온통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예배였다.

이러한 기쁨을 바탕으로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으로 가득한 스리랑카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님,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들이 길이나 자갈밭이나 가시숲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하면서 10박 11일의 선교를 마쳤다.

박범익 집사(16교구 5지역 스리랑카 단기선교)

주님께서 앞장 선 선교

약 3개월 정도 기도회와 언어공부를 비롯해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무장했다. 나의 모난 부분을 깍고, 가시같은 부분을 도려내었다.

우리는 선교 일정을 5월 21일에서 30일까지로 정했다. 떠나는 날 새벽에 남편과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책상 앞에 앉았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두 아들에게 유서를 썼다. 내가 서약했듯이 주님 뜻에 모든 사역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유서를 쓰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대지 위에는 5월의 싱그러움이 펼쳐졌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라고 다함께 찬양을 불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방도시(폴토바)에서 여정을 풀었다. 그 곳은 정교회가 많이 있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잘 모르는 그들을 보며 팀원들은 안타까운 눈망울을 굴렸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서로를 위로하며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하는 동안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 우리는 그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주님을 찾았고, 아침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심을 느끼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수에 취한 사람처럼 전도에 열중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 현지인 '안나' 가 "주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해서 감동했다. 그리고 서로 안아주었다.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씨앗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김문정 집사(12교구 6지역, 우크라이나)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0교구 7지역	최지윤	몽 골	6월 23일(월)-7월 2일(수)
17교구 7지역	김연근	카자흐스탄	6월 24일(화)-7월 4일(금)
3교구 6지역	정창수	몽 골	6월 27일(금)-7월 5일(토)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4교구 4지역	박필래	불가리아	6월 17일(화)-6월 26일(목)
14교구 3지역	이정탁	몽 골	6월 17일(화)-6월 27일(금)
9교구 5지역	권 철	카자흐스탄	6월 17일(화)-6월 27일(금)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7교구 11지역	한만교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4교구 6지역	문효식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5교구 7지역	전종일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에바다부	조종환	카자흐스탄	6월 10일(화)-6월 20일(금)

CMTC 집중훈련 안내

1. 일 시: 2003년 6월 21일(토) 14:00~18:00
   2003년 6월 28일(토) 14:00~18:00
2. 반 편 성 1강~4강까지 강의하는 A반과
   5강~8강까지 강의하는 B반으로 편성했음.
3. 장 소: 갈릴리홀 (A반), 제2교육관 2층 (B반)
4. 대 상: 단기 선교 신청자 및 관심있는 성도
5. 회 비: 학생 5,000원 / 일반 10,000원

A반 강의 내용 / 강의 장소 : 갈릴리홀

강의 시간	교육 과목	강 사
1강 (14:00~14:50)	영성 훈련(I)	정현민 목사
2강 (15:00~15:50)	교회 선교 정책	이종철 목사
3강 (16:00~16:50)	선교 역사(I)	고광환 목사
4강 (17:00~17:50)	선교 역사(II) (정,카,불,회,힌)	김황곤 목사

B반 강의 내용 / 강의 장소 : 제2교육관 2층

강의 시간	교육 과목	강 사
5강 (14:00~14:50)	전도 실제	여국근 목사
6강 (15:00~15:50)	팀훈련의 실제 준비 및 사역	방준영 목사
7강 (16:00~16:50)	단기 선교 이론과 실제(나라별)	여성기 목사
8강 (17:00~17:50)	영성 훈련(II)	이종대 목사

전반기 CMTC 훈련 수강자 중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으로 인해 수료하지 못한 성도는 금번 집중 훈련에 이수하지 못했던 과목을 수강하여 CMTC를 수료할 수 있음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단기 선교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젊음, 우리는 복음의 사도 ⑩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교회를 그냥 물 흐르듯 두리뭉실하게 다녀서 믿음이 나태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제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선교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며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권유로 선교 훈련을 시작했고 선교를 위해 우즈벡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여행 초반에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지만 내게 큰 변화의 계기가 없었고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한 여대생을 만나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여대생도 복음에 대해 듣기를 즐거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에 대해 시각을 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전도지를 돌리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걱정 말라며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이 없나' 하고 의아해 하는데, 목사님도 '괜찮다' 며 태평해 해서 일단 저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사를 받은 후 아무 일 없었던 듯 바로 풀려났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는 것과 믿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요.

김소현 (대학부)

선교를 다녀 와서 분명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제할 때 대화의 초점이 성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묻거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아냥거리면 설명해 줄 말도 몰랐고 부딪히기도 싫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고 진지하게 답변해줍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⑨

1.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중앙 아시아 내륙에 자리잡고 있는 '키르키즈스탄' 으로 7월 22일 출발합니다. 키르키즈스탄은 회교국(60%)이며 카라발타는 수도 비쉬켁에서 3~4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고산 지대이며 도로도 협소하고 인구는 5만 명 정도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대로 구역을 선정하고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장년과 어린이를 합해서 70여명 정도의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며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는데 여러가지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드셨는지?

물론, 팀 구성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만이 신청을 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고 지역원들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0명의 팀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 단기 선교를 위해서 주제로 삼고 싶은 성경 구절과 그 이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행 4:12),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 구원의 구주를 모르는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키르키즈스탄의 영혼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9교구 6지역장
김연태

4. 단기 선교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 팀원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제목(선교지:키르키즈스탄 카라발타 / 7월22일~8월1일)
1. 키르키즈스탄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2.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3. 성령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4.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엄정섭 기자)

미련해 보이는 복음

새로 방글라데시 팀에 나온 리톤 형제의 집을 방문했다가 만났던 띠푸 형제는 리톤 형제의 친동생입니다. 힌두를 믿던 이 형제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했지만, 두 형제는 이 죽음에 대해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띠푸 형제는 열심히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띠푸 형제에게 다음에 방글라 성경을 전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다음주, 방글라 성경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띠푸 형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띠푸 형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바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띠푸 형제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띠푸 형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띠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띠푸 형제는 엉엉 울며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함께 슬퍼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띠푸 형제에게 이번만큼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띠푸 형제의 마음을 열어 주셨고, 띠푸 형제는 드디어 예수님을 여러 신 중의 하나가 아닌 유일한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방글라 친구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혼자 있더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띠푸 형제를 다시 만났을 때, 띠푸 형제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띠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방글라데시 팀에 이렇게 귀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전 1:21).

이종원(간사, 방글라데시 팀)

구별됨의 용기

안 정 하 (신입부 리더)

전 '태신자'라는 말의 의미가 좋았습니다. 한 영혼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학부 때부터 신입부 리더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신입부 리더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못했었죠. 청년부에 올라왔을 때 당시의 전도사님이 신입부 리더를 권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신입부 리더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교회를 하나의 이익단체라고 생각하는 신입회원들이나,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등록한 신입회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조원들이 교회에서 교사나 사역자로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힘든 일들은 다 잊고 뿌듯해지지요. 한번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한 후배가 직장을 구하다가 냉대를 받아 힘들어 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위로받아 청년부에 잘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기뻤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르치기 힘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사람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 또는 경험의 틀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기도의 답까지 달아두고 그것이 명확한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루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거나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침묵에 빠지곤 하지요. 여기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특히,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갖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일이죠. 영생의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구원에 큰 비중을 두고 나눕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구원에 대한 간단한 신앙 경험과 지식은 있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는 것을 보는 것도 안타깝고 슬퍼요. 성도가 생활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영혼구원과 더불어 삶의 영역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구별됨의 용기를 갖기를 소망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꾸준히 봉사를 했었는데, 그 때 했던 봉사들은 제가 무엇을 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점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순순하게 소원해서 봉사를 시작한 것이 벧엘 성가대였습니다. 굳이 벧엘 성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찬양을 통해 주님을 알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 성가대 석에서 찬양 중에 주님 은혜에 감동하여 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예배 직전 연습할 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예배 중 찬양할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습 때 하는 찬양은 주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에도 분명 찬양하는 것이지만 예배의 특별한 감동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절 때 했던 칸타타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까지를 다루었는데, 지휘자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소리를 지를 때에 고운 목소리로 하지말고 목소리가 갈라져 칸타타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듯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고 있는데 어느덧 그 소리가 정말 나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이해되면서 '예수님을 내가 못박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그 때처럼 절실히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듯 죄인이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쁩니다. 요즈음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물론 완전한 인간은 없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이끄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저를 천국문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소명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양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찬양을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하는 일이기에 더욱 기쁩니다.

정한나(벧엘찬양대)

장학생 인터뷰 ❾

오직 주님만

저는 작년 여름에 생각지도 못하게 농촌에 있는 부평교회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영적, 육적으로 피폐해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출발 5일 전에 팀에 합류해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주님은 제게 겸손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더이상 일이 아니었지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선교에 대한 마음도 품게 되어서, 올해 초에 이집트로 단기선교를 다녀오게 되었고요. 이전 같았으면 단기선교는 커녕 교회 수련회도 안 가려고 버텼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지만 제게는 아직도 철없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일꾼이란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일하는 것은 천국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보혈에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천국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라도 그냥 내 편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요.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저 역시도 주님은 쓰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개인 능력의 고하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6~8).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 된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처럼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민우(대학부)

성악을 하려고 마음먹은 계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악을 시작할 즈음에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1등을 하고 싶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이며, 나의 주인이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특히, 궁휼로써 죄인인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으로 내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성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레슨을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악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레슨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성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악을 공부하다보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기 레슨 선생님이 발표회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면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기 레슨 선생님의 미움을 받아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독실한 크리스천인 선생님을 만나서 즐겁게 성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하다보면 성도들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음악적 기교나 성도들 자신의 음악적 성향에 치우쳐 찬양하는 사람이 주목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현란하게 만드는 기교나 모양을 최대한 배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단순히 세상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제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 기쁩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저의 개인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아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하나(벧엘찬양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10. 아, 십자가 아래서 쉬고 싶다

경건한 옛 성도들이 작시(作詩)한 십자가 찬송에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또는 '십자가 아래 쉬고 싶다'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갈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들의 찬송을 즐겨 부르는 우리도 그들처럼 십자가를 뜨겁게 갈망하는 것일까? "아,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아, 십자가 아래서 쉬고 싶다"라는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자주 우러나오고 있는 것일까? 때때로 나는 그들이 지은 십자가 찬송을 부르다가 더 이상 따라 부르지 못하고 가사만 묵묵히 바라보곤 한다.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간절한 심정을 동일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들의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십자가를 알면서도 십자가를 뜨겁게 갈망하지 못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일이 우리 안에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고통하며 슬퍼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사함 받고 쉬기를 원할 것이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 저 햇빛 심히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찬송 471장).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실제로 맛보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그 복됨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어떤 음식이나 희미하게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확증된 사랑과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맛보고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게 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찬송 496장).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부족할 때, 나는 옛날 어떤 경건한 성도처럼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오늘도 죄의 더러움과 추함과 무거움을 분명하게 보게 하옵시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서 베푸시는 은혜를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이태복 목사)

다음 주일 찬송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886년 칼 구스타프 보버그(Carl Gustaf Boberg, 1859-1940) 목사가 작시한 "O Store Gud(오 위대하신 하나님)"는 스웨덴 찬송가로 이웃나라 성도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런던 태생의 스튜와트 하인(Stuart K. Hine)목사의 번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 작시자의 근본 진의를 잘 살리면서 역자의 영적 체험이 참가된 훌륭한 의역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우주 자연계를 통하여 그의 위대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되 셋째단, 넷째단의 리듬을 정확히 보고 노래해야 한다.

1절: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손으로 빚으신 모든 세계를 생각해 볼 때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내가 별들을 보고 올려퍼지는 천둥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2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짝에서 그리고 나무에서 새들의 즐거운 지저귐을 듣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 바라볼 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3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려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즐거이 지시고
피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이하기만 합니다

4절: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내 마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임할 것인지요?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나의 하나님, 주는 진실로 위대하십니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후렴) 나의 영혼이 구주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의 구주께 나의 영혼이 노래합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더욱더 위대하시나이다

(찬양위원회)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자원봉사

김 영 달 (장로, 사무국장)

금년에는 봉사위원회 주관으로 각 교구별 · 부서별로 교회 내부와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계획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믿음과 순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할 기본요소이다. 권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갈릴리홀, 베다니홀, 나사렛홀 등의 의자를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들이 오래전부터 교대로 본당 1, 2, 3층의 장의자와 문짝 등을 열심히 청소하는 것 역시 믿음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 *어느 안수집사와 권사 부부는 매일 아침시간을 내어 교회 앞 화단의 무성한 풀을 여러 날 동안 깨끗하게 뽑았다. 그들의 모습은 아침햇살과 같이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보였을까?*
- *외선부(몽골, 러시아, 몰도바 등)의 남녀 성도들이 화단과 배수트랜지(하수도)를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에서도 충현교회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미래를 이끌 꿈(Vision)을 소유한 대학부 70명이 제2교육관 전체를 대청소한 일도 믿음과 순종의 결과인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로서 미래에 크게 쓰임 받을 주인공의 자질을 보여주어 충현교회 미래가 밝게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어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매우 가치있는 일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하나님이 주신 충현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온 제직들이 더욱더 권면하고 열심히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 하겠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

자원봉사 참가인원(6월 14일 현재)

구분	인원	회수
2교구	17	3
8교구	3	1
16교구	6	1
17교구	47	5
대학부	70	1
외선부	89	7
직원	20	4
권사 1지회	54	3
권사 2지회	44	4
권사 3지회	69	4
권사 4지회	29	2
권사임원	9	1
계	457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29	김태영	1	장년1부	
730	박주삼	1	청년2부	서수정(3)
731	최선미	1	청년2부	서수정(3)
732	이복희	1	장년1부	
733	박효숙	2	청년1부	
734	강성택	2	청년1부	
735	임희춘	2	장년2부	문인란(2)
736	강인수	3	청년2부	김신국(3)
737	김창석	4	장년2부	전성실(2)
738	문길영	9	청년2부	라봉도(11)
739	박선희	9	청년2부	라봉도(11)
740	박기철	10	장년1부	조옥환(10)
741	신원정	11	장년3부	전용해(8)
742	나동근	12	장년3부	최봉순(7)
743	이예순	12	장년3부	유병열(12)
744	박금숙	13	청년2부	박성남(13)
745	나경아	13	고등부	박성남(13)
746	이정실	14	소망부	김광연(14)
747	이성훈	14	청년2부	
748	Cheetra Gu	19	외선부	지영순(4)
749	이봉순	19	외선부	
750	Kalyan Dan	19	외선부	김정은(8)
751	최종현	19	청년1부	전옥순(3)
752	김명선	19	청년1부	정경진(2)
753	백혜정	19	청년1부	허선(15)
754	서연경	19	대학부	성미경(3)
755	장보석	19	대학부	박준상(194)
756	손슬기	19	대학부	
757	허미연	19	대학부	박태남(9)
758	한경아	19	고등부	이소연(19)
759	김솔이	19	중등부	이희주(2)
760	김효영	19	중등부	이혜선(2)
761	김영희	19	중등부	최철희(19)
762	김미진	19	중등부	박재근(2)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숨은 양 찾기

홍 영 원 (유치부 열매 7반 교사)

오늘도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힘들지만 난 나의 직장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유치원 교사로 아이들과 있을 때 난 언제나 그들의 친구가 된다. 세상의 티 없이 맑게 자라난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날 행복하고 기쁘게 한다. 아마도 난 이런 즐거움이 있기에 일이 힘들어도 유치원 교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것 같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전 난 충현교회 유치부 교사를 먼저 시작했고, 이 곳에서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비록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일이었지만 정말로 보람되었다. 아이들과 데이트를 하는 동안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충현교회 유치부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곳이다. 유치원 선생님이다보니 어린 친구들을 매일 만나게 되고, 아이들을 유심히 보게 된다. 주님을 아는 아이들에게서는 남을 배려해 주고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전히 주위엔 안타깝게도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주님의 곁으로 이 아이들을 모두 불러 그 안식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훈련받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많이 웃고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

성도 여러분! 충현 유치부에서는 50여 명의 교사들이 귀엽고 사랑스런 주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주일 (오전 9시, 11시)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전도사님의 지도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6~7세 자녀가 있는데 유치부를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샘 골로새서(Coloss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기간 중에(3차 선교여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는 이방인이 골로새에 세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골 1:7~8, 행 19:10). 이러한 사실은 매우 흥미진진하며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의미있는 도전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첫 해에 회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 것은 고작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십 여 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가득하면서도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키지 못하는 오늘날의 어린 교회들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한편, 우리는 교회가 특정의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골로새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유념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사도 바울이 이단사상들에 대항하여 어떻게 그 도전들을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수호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 교회에 찾아든 영적인 위협,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위협하거나 왜곡하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혼합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과 변증의 편지라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에는, 우선 바울이 '기독론'이라는 신학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1:15~20; 2:2~3,9 등, 바울은 이단성을 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신성을 먼저 제시했으며, 그것은 1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사상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4; 2:8; 2:11; 2:16~17; 2:18a; 2:18b; 2:21~23 등, 이단사상에 대해서는 구절들이 말해주듯이 2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사상들이므로, 여러분들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상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주의 깊게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석 등을 참고하셔서 그러한 사상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필요로 하며, 도전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 및 이단사상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골로새서'를 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바울의 수고와 감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지식은 빛나고 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누리는 깊은 감격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골로새서를 이해하려는 차원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은 감격스러운 정서 등을 살펴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목사(출판국지도)

절망의 한 복판에서

손 송 이 (소년부 진리1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알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고난을 더 좋아하십니다.

다이아몬드는 산불이 나서 타 버린 커다란 나무들이 숯이 되어 땅속에 들어가 썩이고 압축을 받고 굽히는 등 고난을 당하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숯과 같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가당없이 주시는 게 아니란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생각해야 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무섭지 않으려면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소식

알 림

1. 제3차 학습 · 세례식 안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제2차 학습 · 세례식이 본당에서, 3시에 유아 세례식이 갈릴리 홀에서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 임

1. 권사 수련회
일시 : 23~24일 10:00
장소 : 갈릴리홀
2. 권사 4지회 월례회
일시 : 24일(화) 수련회 후
장소 : 갈릴리홀
3. 남녀전도회 연합회 월례회
일시 : 오늘(주일) 15:15
장소 : 전도위원회실
4. 소망부 여름수련회
일시 : 7월3~4일10:30~14:30
장소 : 갈릴리홀

결 혼

1. 김달선 군(김태두 성도, 이명자 성도의 아들)과 윤세진 양(윤주현 안수집사, 이선숙 집사의 딸, 7교구)/ 28일(토) 17:00 휘닉스파크호텔 2층 볼룸(033-333-1534)

별 세

1. 김진 권사 김순오 권사의 모친, 조영철 집사의 장모, 12교구 교하구역/ 6월13일 별세, 6월16일 장례
2. 김수남 집사 박갑순 성도의 모친, 7교구 광주 1구역, 박신춘 권사의 모친, 이규선 집사의 장모, 16교구 평산 1구역/ 6월17일 별세, 6월19일 장례

◆ '충현교회 찬송가 제1집' 제작 및 판매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전력하고 있는 즈음에 '충현교회 찬송가 제1집'이 테이프와 CD로 제작되었다. 모두 18곡이 수록된 제1집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라는 시편 96편 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충현의 일꾼들에게 믿음과 헌신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참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판매처 : 사무국 판매대금 : 테이프 1,000원 / CD 3,000원)

◆ 2003년 교사교육 및 여름 계절학교 강습회

1. 일 시 : 2003년 6월 26일(목) 19:00~22:00
2. 장 소 : 제2교육관
3. 대 상 : 주일학교 전 교사
4. 시 간 표
19:00~19:50 개회예배 및 기도회
19:50~21:00 성경교수법(어린이/청소년)
21:00~22:00 부서별 교재 워샵(부서별공과교육)

◆ 선교기도회

2003년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불씨를 더욱 지피고자 아래와 같이 기도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03.6.25. 수요 2부 예배 후
2. **장소 :** 베다니홀
3. **참석대상 :** 선교위원회 위원, 실행위원, 147개 팀장, 선교에 뜻이 있는 분

◆ 2003년도 후반기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한 중 · 고 · 대 ·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2003년 6월 22일(주일)부터 2003년 7월 13일(주일)까지
3. 신청장소 : 교육국
4. 문 의 : 교육국 (☎552-8200 교472, 473)

◆ 홀트아동복지회 초청 국외입양 가족 본교회 방문

본 교회에서는 연례 행사로, 홀트아동 복지회 초청 모국 방문단을 맞아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모국의 문화와 신앙정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5가정의 민박 및 초청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민박을 자원해 주신 봉사가정에 감사하며 본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7월 5일(토)~ 7월 6일(주일)
2. **방문팀명 :** 미국 훼미리 팀
3. **인원 :** 총 28명 4. **주관 :** 선교위원회

충현기도의창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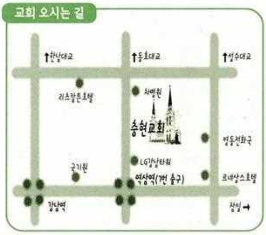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종철/정청길	여국근/이명회	김교성/김문섭	안창덕/김철환	방준영/윤석민	나광영/조옥자	정현민/강덕필

예배 담당안내 (6/25~6/29)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6/25	수요 I		서광진	박현숙	하나님의 일꾼(골 1:24~29) 방준영 목사
6/25	수요 II		최종철	이현진	세상의 빛되신 예수(요 9:1~12) 하종철 목사
6/27	금요집회	특별찬양 (소프라노 김연희/임마누엘 여성중창단/ 가브리엘 찬양대)	이종대		김영훈 목사
6/29	주일 I		최종철	박덕양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3) 김황곤 목사
6/29	주일 II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외/가브리엘 중찬단(지도: 김승희)	나광영	배춘식	내가 행하리라(창 12:1~3) 김동하 목사
6/29	주일 III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외/테너 김창근(임마누엘 찬양대 지휘)	김영훈	정청길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창 12:1~3) 이종대 목사
6/29	주일 IV	환난과 핍박 중에도 외/바리톤 서준성(가브리엘 찬양대 지휘)	여국근	강철형	부르심과 보내심의 복(창 12:1~4) 이성욱 목사
6/29	주일 V	햇빛을 받는 곳마다 외/벧엘 중창단(지도: 김혜선)	이종철	김광남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라(창 12:1~3) 이종대목사
6/29	주일찬양		김익환	박호용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시 13:1~6) 김교성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10:5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유 치 부	I 오전 9:00 II 오전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오전11:0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후12:20	교육관 501호
장 년 1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12:15	갈 릴 리 홀
신혼가정부	오후12:15	교육관 204, 205호
사 랑 부	오전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9:00(학생)/오후1:00(성인)	교육관207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새가족부	오전 9:30	갈릴리홀, 베다니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조기교육원	주간교육	충현 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충현선교훈련	오후 6:10	갈 릴 리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김의철 선교위원장, 김은호 7교구장, 노광헌 당회 서기, 오진국 예배위원, 이병학 교구위원장
최대원 예배위원장, 엄필성 제3교육위원장, 강모용 구제부장, 이 훈 찬양위원장,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구장, 김영길 봉사위원장, 조인제 봉사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최무길 건축위원
김천채 1교구장, 이창호 사랑부장, 차신득 법인운영위원, 김광남 전도위원장, 이종석 기획위원장
이병옥 감사위원장, 안종욱 탁아부장, 임무천 건축위원장, 최기홍 예배부장, 이갑재 15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직능전도부장, 이정우 건축위원, 김단용 14교구장, 황영일 건축위원
한송규 신혼가정부장, 김영수 선교위원, 김환기 9교구장, 원응철 제1교육위원장, 이형수 당회부서기
안동현 차량안내부장, 황의만 소망부장, 김구형 제2교육위원장, 최윤덕 임마누엘찬양대장, 이계인 아멘찬양대장
박덕양 새가족부장, 이태식 청년2부장, 정태두 봉사위원, 박홍규 가브리엘찬양대장, 권명옥 전도위원
조종환 에바다부장, 배춘식 13교구장, 김영달 사무국장, 이실호 제1교육위원, 박찬섭 제1교육위원
최지윤 장년1부장, 노영한 3교구장, 박철구 전도위원, 정청길 예배위원, 신상수 예배위원
강철형 예배위원, 고제승 청년1부장, 김영은 행정위원

■ 부목사

이종대 소망부, 정현민 교구위원회, 김동하 기획위원회, 서광진 5교구, 박인기 에바다부
여성기 3교구, 류병희 대학부, 이종철 선교위원회, 김영훈 9교구, 여국근 2교구
김교성 11교구, 이유진 14교구, 안창덕 16교구, 방준영 8교구, 나광영 6교구
정진호 7교구, 김용덕 15교구, 이성욱 10교구, 고광환 1교구, 김황곤 외선부
위건량 12교구, 김익환 13교구, 김정수 고등부, 장 훈 소년부, 임현덕 17교구
이회식 중등2부, 최종철 중등1부, 하종철 17교구, 안치원 유년부, 이태복 편집국
정충신 초등부, 양재웅 교육연구원

■ 전도목사 이정철

■ 여전도사

정연희 9교구, 신동자 4교구, 윤인숙 3교구, 한영준 12교구, 김연식 17교구
홍순애 10교구, 이옥주 6교구, 김말자 5교구, 안태순 8교구, 김정연 13교구
조옥자 7교구, 강덕필 16교구, 김정신 14교구, 장혜구 2교구, 최문실 11교구
전은희 17교구, 김영순 1교구, 김정자 15교구, 이수경 19교구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독창자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엽 (스리랑카)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